

백종원 “소스류 유통사업·MF 전략으로 해외진출 도모”

(마스터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시작 첫날
상장 후 시가총액 4918억 달해

유통사업, 외식사업 매출 수준 목표
지역축제 개발, 기업 성장 가능성 ↑

“상장한다고 점포를 확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성장은 유지하되, 해외진출 등을 위해 소스류 유통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 부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상장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은 더본코리아의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이 시작된 첫날이기도 하다. 확정된 공모가 3만4000원 기준 총 공모금액은 1020억원으로 더본코리아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4918억원에 달한다. 더본코리아는 백다방, 홍콩반점 등 25개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H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MR, 가공식품 등의 유통사업, 호텔사업(더본호텔)을 영위 중이다.

강석원 공동 대표이사는 더본코리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경쟁력을 발표했다. 강대표는 “외식사업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유통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년 내에 유통사업 매출

을 외식사업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더본코리아의 매출 84.4%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했다. 유통사업 매출 비중은 13.7%, 호텔사업은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백종원 대표는 ‘해외진출’과 ‘지역 개발 및 축제 사업 개발’을 미래 성장 동력

으로 제시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14개 국가에서 149개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백 대표는 “향후 마스터프랜차이즈(MF) 전략으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굴지의 유통회사와 식품회사가 회사에 접촉해 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히 “K-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더본코리아는 이를 위해 소스류의 OEM 생산(위탁생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다는 구상을 밝혔다. 백 대표는 “한식을 먹고 싶어도 해외에 있는 식당에서 모든 한식 메뉴를 만들 수 없다”며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소스만 섞어도 한식 고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소스류 판매 유통라인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해외 현지 공략 계획을 설명했다.

소스류 개발로 가맹점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백 대표는 “백다방도 편의점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그런 우려를 받았지만 결국 수익은 더 올랐고 마케팅 효과를 더 누렸다고 볼 수 있다”며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지, 일방적으로 유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예산 시장과 같은 ‘지역 축제’ 개발을 통해 회사 성장 가능성도 열었다. 백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3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은 IP를 토대로 축제를 개발해주는 방식이며 지역 관련 사업 규모가 현재 더본코리아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원 대표의 미디어 노출이 큰 만큼 ‘오너 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백 대표는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고, 사람일은 알 수 없지만 사고를 쳐서 뭘 하겠냐”며 너스레를 떨었다. 끝으로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고물가 시대에 외식업계의 물가마지 노선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은퇴한 후에도 더본코리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상장 이

유를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레페리, 신개념 리테일 실험... 뷰티 크리에이터 오프라인 소통 ‘첫선’

장의 기업 탐방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

138만 구독자 보유한 ‘레오제이’
메이크업 고민 들어주며 실시간 소통
레페리, 글로벌서 K-뷰티 성장 도모

‘K-뷰티’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서 신개념 리테일 공간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가 론칭됐다. 약 13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엄선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새로운 방식의 ‘뷰티 경험’을 선사하며 흥행을 이뤘다.

28일 레페리에 따르면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는 크리에이터만이 펼칠 수 있는 구독자·소비자의 소통의 특성을 오프라인에 구현한 첫 사례다. 뷰티 업계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선택한 상품을, 소비자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가 14일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 중인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에서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연결될 수 있는 구독자 등에게 ‘체험’ 위주로 연결시킨 것이 핵심이다.

레오제이는 “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으로 전부 전달될까란 궁금증이 있었다”며 “이번 셀렉트 스토어를 통해 직접

제품 설명을 듣고, 사용해 보면서 구매 여부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스토어의 가장 큰 차별화 역시 ‘경험’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셀렉트 스토어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됐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했다. 레오

제이가 메이크업 고민을 들어 주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LEO 메이크업 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150명을 초대한 ‘토크쇼 with 오레오(구독자명)’, ‘뷰티 패널 토크’ 등이 이뤄졌다.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셀렉트 스토어 1층에서는 레오제이가 엄선한 색조, 스킨케어, 향수 등 총 21개 브랜드 제품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진열돼 있다.

레오제이가 가장 추천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그가 직접 도슨트로 변신해 스토어를 돌며 제품과의 매칭 스토리, 강점 등을 설명한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레오제이 셀렉트 스토어에 방문한 최모(여·20대)씨는 “유튜브 제품 추천 영상을 볼 때, 광고도 많고 나에게 적합할지 의문이 생겨 믿음이 덜었는데 이렇게 셀렉트 스토어를 진행할 정도면 정말 자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추천 제품이 한 공간에 모여 있

으니까 보기에도 편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제품에 접근한다는 점이 확실히 메리트 있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레페리는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그룹으로 400여명의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투자자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기에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레페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뷰티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우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셀렉트 스토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신개념 리테일 실험이라는 도전을 추진했다.

최인석 레페리 의장은 “레페리는 프랑스의 와인과 패션처럼 분명하면서도 수준 높은 한국만의 종합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株, 3분기 실적에 대형사 ‘웃고’ 중소형사 ‘울고’

대형 증권사, 상반기 이어 호실적
중소형사, 실적부진에 주가 약세

대형증권사들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3분기 실적에 따라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대형 증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는 데 반해 부진한 실적을 보인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이달들어 9%대 오르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7.81%), 한국금융투자(6.95%), 키움증권(3.62%), NH투자증권(1.49%) 등도 상승 추세다. 이에 반해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다올투자증권은 6.75%, SK증권은 2.70% 하락했으며 유안타증권은 0.34% 빠졌다.

대형 증권사들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산한 증권사 5곳(미래에셋·NH투자·삼성·키움·

대신증권)의 올해 3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1조6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34% 늘어난 수준이다.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 모두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브로커리지 부문 수수료 수익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은 1379억4000만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금현물 ETF’, 순자산총액 325% ↑

美 연준 금리인하에 금투자 수요 쏠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올들어 325% 증가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거래일(25일) 기준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총액이 2024년 들어 325.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의 작년 말 순자산총액은 1095억원 수준이었으나 전일 4659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1개월 사이에만 1057억원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률 부문에서는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중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23개 상품 가운데 6개월, 연초 이후, 1년 기간 모두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 투자에 쏠리는 투자자의 관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평가받는 금 투자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허정윤 기자